

# 학원 · 교회 · 인터넷서 불교편혜는 진행중

## 안양 백영고 특정 종교 강요 · 불교 비하 UCC · 김성광 목사 망언... 편향 백태

안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에게 특정 종교 행위를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학교의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네티즌은 "불교계 좌편향 실상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UCC를 제작해 인터넷에 배포했고, "불교를 때려부수자"며 불교계 비하 발언을 했던 김성광 목사(서울 대치동 강남교회)의 망언도 제차 드러났다.

### #전교생 교회로 등교하라니

안양시 평촌에 위치한 학교법인 백신학원 백영고의 한 졸업생은 2009년 11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2010년 신입생에게 바치는 글'을 올렸다.

졸업생은 글에서 "한반에 불교, 천주교, 무교인 학생이 절반 가량 되지만 (백영고는)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새중학교에서 매주 금요일 1교시 '명사특강' 수업이 진행된다. 다른 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예배시간'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침마다 새중학교회로 등교해 위신(천송과 압송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학교로 와 2교시 수업을 듣곤 한다. 산이 무너지고 강물이 마르는 일이 있더라"고 학생 그 시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졸업생이 밝힌 '명사특강' 과목에서는 수업 마지막에 학생회장이 대

표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로 시작하는 '나의 다짐'이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또 1학년생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수업을 편성해 현직목사 등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생은 "신앙논술을 1년에 4번 본다. 안 쓸 수가 없다. 정말 안 쓰면 유급인지는 모르겠다. 상을 주긴 하는데 일단 상에 관심이 없어도 생존능력처럼 채우기는 해야 한다"고 적어, 학교가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신앙 논술' 문제는 △십계명을 암기해 쓸 것(필수) △아담과 하와와 타락과정을 설명하고 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할 것 등 기독교적 세계관과 직접 관련된 질문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학교 측은 "일부의 불만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독교 이념을 근거로 설립한 백영고는 홈페이지의 학교 특색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기독교인으로 기르는 신앙교육"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 한기남 사무처장은 "백영고 등 개신교 측은 문제제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종교교육이 위법임에도 자신들의 소명이라고 생각



한 네티즌이 개인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UCC.

한다"며 "종교인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등에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종자연은 백영고의 종교침해 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교계 관계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불교계 종립학교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대체수업을 실시해 특정 종교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 학교법인 보문학원 산하 대전 보문중이 종교 과목을 대체수업으로

실시하는 예이다. 대전 보문중 신병원 교장은 "대체 수업으로 한자를 진행했고 현재는 컴퓨터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 참가율은 50%정도다"라고 말했다.

전국교법사단회장 이옥태 교법사(해동중)는 "불교계 사립학교에는 수업시간에 예불을 드리거나 하는 종교활동을 하지는 않고 종교일반, 문화, 국제, 환경, 문화유산 등 사회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 학교법인 보문학원 산하 대전 보문중이 종교 과목을 대체수업으로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은 교회 등교를 금지시켰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담당 김중표 장학사는 "29, 30일 학교현장에서 확인했다. 금요일 1교시마다 교회로 출석하게 했던 것은 금지시키고 방과 후 회합자에 한해 참석하게끔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종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생의 선택권 보장과 종교수업 · 행사를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전국 236개 종교계사립학교 가운데 복수과목 미개설, 과목 외에 예배 등 종교행위

의무화를 강요해 학생들은 힘없이 종교자유를 침해받고 있어 교육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좌파? 불법에 좌우가 어딨나**  
최근 한 네티즌은 '불교계 좌편향 실상,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UCC를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UCC에는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영향으로 인해 불교계 내부에도 종북 좌파들의 입지가 강화됐다"며 민족공동체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월간지 <민족21> 발행인이라는 근거로 명진 스님을 북한 추종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좌파 승려들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체제를 굳건하게 수호하려는 현 정부에 맞서 소위 종교차별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반정부 선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현실정치까지 개입하면서 4대강살리기 반대 등 공공연하게 정부정책반대를 선동하면서 정치집단화를 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들 좌파승려들은 조계종 총무원의 인사문제를 모 정치인 탓으로 전가시키면서 봉은사 주지 자리를 놓고 무소유가 아닌 소유를 둘러싸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치지 않는 김성광 목사 망언**  
불교계 비하 발언을 일삼는 김성광 목사(서울 대치동 강남교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광 목사는 3월 24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주제의 수요예배에서 "봉은사는 좌파, 반정부 반국가 행동하는 단체" "불교, 가톨릭은 공산당 국가 만들고 김일성 추종세력 중국 세력"이라고 종교간 대

립을 부추였다.

김 목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며 "봉은사는 1년 예산이 150억이다. 여기저기 용산참사에도 돈 가져다 줘서 좌파라고 소문이 났다. 6·15선언부터 시작해서 전부 반정부 활동만 한다"며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봉은사에 절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20만 명이다. 그 옆에는 국회의원 바퀴가 있고, 이 쪽에는 봉은사가 있고, 우리 강남교회도 쳐다봐야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비교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이 모든 불순 세력, 어두운 세력들이, 공산당 세력, 파괴 세력들이 다 떠나고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가톨릭과 불교계의 4대강 저지 운동에 대한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김 목사는 "불교, 가톨릭의 반정부 반국가 행동으로 단체들도 여기저기 일어난다.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며 "불교, 가톨릭은 공산당 국가 만들고 김일성 추종세력 중국 세력"이라고 설교했다.

이에 대해 김성광 목사는 불입여성이 절에서 기도하다가 안구종양암이 걸린 사례를 들어 "절간만 다녔다가 귀신과 마귀가 들어가 병이 났다"며 "절에 가면 절만 하고 비싸다는 부적을 했다. 갈 때마다 108하니까 배는 다 들어가겠다"고 말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 교회, 인터넷까지 사회 곳곳에서 불교편혜와 종교편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상언 기자



## 뭇생명 귀하다면 17일 조계사로

정부의 4대강 삼십이 쉼터가 있다. 강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다. 뭇생명이 죽어간다. 공사현장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이들은 참회기도뿐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불교계는 오래전부터 뭇생명 살리기를 호소해 왔다. 수경 · 지율 스님이 그 예다. 스님들은 공사현장에서 참회하며 죽어가는 뭇생명을 살리는 뜻과 힘을 모아 달라 호소했다. 그 외침에 귀 기울이는 불자는 많지 않았다.

3월 15일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등이 모인 종교환경회의는 낙동강 상주보에서 공동기도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스님은 지율 스님 훈자였다. 스님의 얼굴에는 외로움과 아쉬움이 역력했다.

봉은사 직영사찰 건 등이 불교계의 이목을 빼앗는 동안 4대강 현장에서 불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비록 불교계의 4대강 저지 운동은 가톨릭계 등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시작했지만 결집되지 않

은 반대여파는 무시해도 무방할 소수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4월 17일 오후 3시 조계사 일원에서 봉행되는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회는 불자들이 그동안 뭇생명 살리기에 소홀했음을 참회하는 세레모니이다.

부처님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있다(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고 설했다. 연기법이다. 인연연기를 모르는 사람은 무자비(無慈悲)하고 몰자비(沒慈悲)하다.

글씨가 없는 비석 또한 무자비(無字碑) 또는 몰자비(沒字碑)라 불린다. 글씨가 없는 비석은 가치나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연기를 아는가? 마음에 부처님 가르침인 '연기'를 새기고 산다면, 뭇생명에 대한 참회의 날인 4월 17일 조계사에서 만나자.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순례' 국제학술회의 11일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는 선묵해자 108산사 순례기도회와 공동으로 '순례'를 주제로 4월 11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기조강연 △'108산사순례-21세기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패러다임'(선묵해자 스님)과 △'21세기의 보현행원'(미국 스토니브룩대 박성태 교수)을 비롯해 주제 발표 △세계의 중심상징과 성지순례(동국대 김용표 교수) 등이 발표된다. (02)2260-3130

## 불자경제인연합회 6월 15일 출범

불자 경제인을 하나로 모은 한국경제인연합회가 6월 15일 출범한다. 한국경제인연합회 추진위원회(위원장 구자선)는 3월 30일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일정 등을 공개했다.

4일 발기인 대회를 연 한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제1차 창립준비위원회 회의를 갖고 구자선 BBS불교방송 이사총괄추진위원장에 추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진위원인 임장수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구자선 분가식품 회장, 김봉석 신이법무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임장수 부회장은 "현재까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등 5개 종단 신도 중 20여 기업 불자 대표가 가입했다"며 "마음을 함께 하는 종단협 등락 종단의 기업대표들을 모아 창립까지 200여 불자기업인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후원금 145,000. 전화 02)2004-8216

# 자연만을 모은 순수한 향 바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 능인향당

[www.nihwa.com](http://www.nihwa.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능인향당은 중국에 일체의 로얄티를 주지 않습니다. 능인향당의 침향은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등에 로얄티를 주고 수입하여 판매하는 침향과는 다른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향입니다.

능인침향 수

침향적정

침향

침향천관

침향천관 진

침향천관 수

관음수향

상적

무진

세심

능인

미륵

선해

음관

능인침향

적정

라벤더

로즈마리